

Jesus Nazarenus Rex Judaeorum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개방과 소통을 지향하며
쾌적한 치료환경의 병원에서 빠른 치유를”

천주교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이 땅에 가톨릭 신앙이 자라난 이후 여러 차례의 박해로 인해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신앙을 고백하며 순교하였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굳게 신뢰하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에 응답하였고,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이 땅의 순교자들이 보여주었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한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희망으로 말미암아 무아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는 이 땅의 순교자들의 소중한 복음 정신을 찾아내고 널리 전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를 창설하였고, 우리의 수도 공동체가 순교자들의 복음정신을 찾아내고, 그에 따라 삶으로써 모든 영예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교회의 구원사명에 협력하며, 우리의 성화를 이루기를 원하였다.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유형무형의 사회악 현상에 의하여 삶이 황폐해지고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이유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과거의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복음 정신을 살고자 창설된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는 것을 목적으로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을 설립하였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최초의 성직자이다. 그는 조선 정부에 의해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여 1846년 현재의 용산구 새남터에서 군문효수로 처형당하여 순교하였다. 당시 조선 정부는 가톨릭 신앙생활을 국법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김 안드레아 신부와 동료 신앙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선 정부에 의해 박해를 받았으며 급기야 사형을 당하였다.

이는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를 보장하지 않는 증대한 인권에 대한 유린이었다. 인간의 권리는 시대와 상황의 제한 없이 고유하고 존엄한 것이며, 또한 인권은 천부적 권리이고 가치라는 점에서 볼 때, 김 안드레아 신부는 현대 사회의 인권 이해를 이미 150여년이나 앞당겨 살았던 선각자이다.

김 안드레아 신부가 조선 정부로부터 국법을 어긴 죄수로 수배자 처지에서 언제 체포되어 사형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때의 정신, 심리 상태는 오늘날 같은 정신과적 진단 기술이 있었다면 정신병 증상이나 신경증, 스트레스 같은 온갖 심각한 불안 증세는 모두 진단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김 안드레아 신부가 이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사회적·의료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20세기가 다 저물 때 쯤,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이 계획되고 개원할 때쯤에도 한국 정신병원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였다. 이런 현실에서 천주교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는 성 김대건 신부의 세례명을 따서 1990년 9월 한국 최초의 개방형 정신병원인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을 설립, 개원하였다.

개방형 전문병원

소통이 막히고 뒤틀릴 때 사람들의 정신은 상처를 받는다. 정신병원은 정신을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의 치료 방향도 여기에서 잘 나타난다. 병원 어느 곳에도 창살을 설치하지 않았다. 여타의 정신병원 건물구조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격리, 수용, 통제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치료, 개방, 소통이라는 가치를 건축 구조물 안에 담고 있다. 개방형 정신병원의 구조는 환자들에게는 당연히 해방을 안겨주지만, 더불어 치료자의 왜곡된 관점을 해방시키는 인간해방의 도구가 된다. 치료자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에서 해방하는 것이야말로 기존의 정신병원과는 다른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려는 병원 직원들의 선구자적 태도와 맑과 열정은 그 역사성이나 당위성을 서서히 주목받고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환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

개원 이후,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은 새로운 시스템



의 시도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철창 등의 강제장치가 없다고 비현실적 꿈이라는 주위의 우려와 감시카메라(CCTV) 없이 환자를 감시할 수 없다고, 그래서 개방은 시기상조라는 주위의 염려가 컸다. 사람들은 ‘그 병원,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개원 당시 한국 정신의료계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였다. 정신보건법도 1995년에야 비로소 제정되었기에, 정신과 환자들의 처지는 사회적 편견과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낙인으로 인한 심한 고통 중에 있었고, 환자 가족들은 2중고, 3중고의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도회에서는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정신병원의 낙후된 시설과 치료 문화를 환자 중심으로 바꾸어보자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쇠창살 대신 강화유리를 끼워 넣었다. 여기에 강화필름을 붙여 우리가 깨어지더라도 안쪽으로 튀지 않게 하여 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CCTV를 설치하는 대신 환자들 돌볼 직원을 더 많이 채용했다. 병원의 운영비용은 몇 배가 더 들었지만 환자의 인권보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초심이었다.

인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이해하는 열쇠이다. 이 인권에 대한 특별한 이해는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의 진료 현장에서 진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정신과의 진료 상황에서 소홀할 수 있는 환자의 인권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태도이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실천은 ‘환우권익체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정신과 치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보호실의 운영을 최소화하고, 강박 등의 안전장치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그 외에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원시설 및 구조물을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설치하고 활용한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을 소중히 여겨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신의료기관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여, 병원 개원 이후 줄곧 주장해온 “개방형 정신병원, 환경치료 병원, 인권존중 병원”의 지향점은 그 타당성과 권위를 대내외로부터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인권지향의 정신의료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들을 위한 동등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만성으로 진행되기가 쉽다.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에서는 급성·아급성의 환자들을 위해 병동을 개설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치료시기를 늦추면 사회 복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일선에서 종사하는 이들이 모두 공감한다.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다가가는 병원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모자병원으로, 수준 높은 진료와 정신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이며, 또한 정신보건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병원이다. 종합병원이 아닌 한 교육병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병원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는 곧 의료진의 우수성으로 확인되고 양질의 진료를 가능하게 한다. 이 병원에서 양성된 정신과 전문요원들은 이미 여타 병원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그들은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의 치유이념을 확대시키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화된 병동 시스템으로 최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병원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에서는 매우 특화된 체계를 구축한다. 도박, 게임, 알코올, 약물 중독이나, 우울증, 정신분열, 소아·청소년·노인성 질환 등 진단별, 증상별, 연령별, 회복 단계에 따라 안정병동, 반개방병동, 개방병동의 특화된 단계적 병동 운영으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개별화된 치료환경을 제공한다.

정신병원하면 떠오르는 것이 창살과 폐쇄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없다. ‘폐쇄’라는 단어도 쓰지 않는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을 필요로 하므로 ‘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세가 호전되어 갈수록 반개방, 개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병원 어느 곳을 가든지 바깥 경치가 훤히 보이는 큰 창문이 아주 인상적이다. 울창한 숲과 잘 가꾸어진 정원, 산책로, 넓은 운동장 등이 있어 환자들은 자유롭게 산책한다. 환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집처럼 편안한 환경이기에, 이러한 치료환경을 극대화하여 빠른 사회 복귀를 지향한다.

다학제적 팀접근과 치료공동체 병동 운영

또한 양성된 정신보건 전문가들은 치료팀(전문의, 전공의,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임상사목자, 협심자, 자원봉사자)으로 구성되어 치료에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켰으며, 이를 타 정신치료 기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자랑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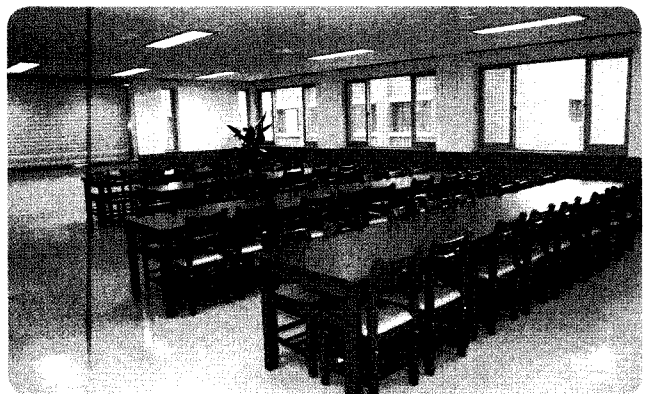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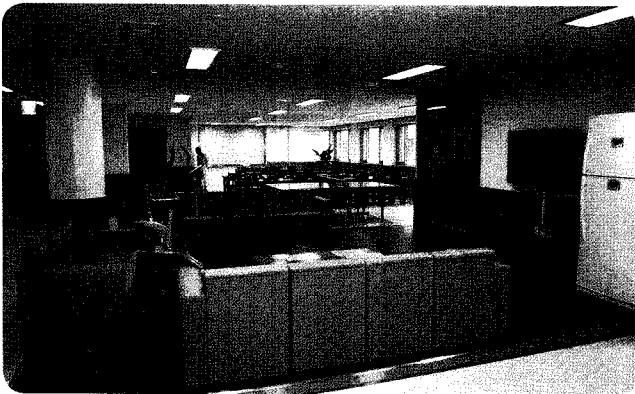
영성을 함께 나누는 병원

다양하고 교묘한 정신문화와 사회현상으로 인해 나날이 약해져가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경천애인의 사상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다.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은 원목실의 임무가 막중하다. 가톨릭 신앙을 지닌 환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신앙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을 알게 하고 신앙으로 이끌고 도와준다. 순교자를 현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수도회의 창설 목적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구현된다.

아울러 타 종교를 신앙하는 환자들에게도 자신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자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직원들의 영신적인 면도 함께 회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도 보이지 않게 돕는다. 이진 참 힘겨운 일이다. 그러나 있는 힘껏 도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과 후원을 간절히 기대한다.

진료 분야

1. 기분장애 - 우울증, 조울증
2. 불안장애 - 범불안장애, 강박증 등
3. 스트레스 관련 장애
4. 수면장애 - 불면증, 기면증 등
5. 정신분열병
6. 중독 관련 질환 - 알코올의존증, 병적도박, 게임중독, 인터넷 중독 등
7. 노인 정신 질환 - 치매, 노인성 우울증 등





8. 소아·청소년 정신 질환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자폐증, 발달 장애 등

클리닉 소개

1. 중독치료재활센터(ATRC)

중독질환은 도덕적 판단이나 의지로 해결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질병으로 이해시킴으로써, 환자를 무시하거나 낙인을 찍는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중독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목적이 있다.

치료과정으로는 기본교육(1-2주), 심화교육1(회복에 대한 동기 강화:2주), 심화교육2(회복에 대한 의지 강화 및 퇴원 준비:6주)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사후관리로는 외래집단 치료, A.A. / G.A. 모임 연계, 상담 센터 연계하고, 퇴원 후 전화로 관리하는 해피콜 서비스도 제공한다. 프로그램으로는 진단별, 연령별, 그리고 환자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2. 사회재활센터(SRC)

정신질환은 호전되었으나 사회적으로 위축, 퇴행되어 사회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개인별 사례 관리를 통해 대인관계 향상 및 적절한 생활 관리 능력을 회복하여, 퇴원 후 가정과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 과정으로는 기본재활, 심화재활, 퇴원 계획 및 사후관리로 이루어지며, 프로그램 구성으로는 사회 기술 훈련, 지역사회 적응 훈련, 연극 치료, 정신건강교육,

약물교육, 예술 및 작업요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3. 신경인지검사(NCF) 클리닉

Compumedics Neuroscan이라는 디지털 EEG장비를 이용하는, 뇌기능의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검사이다.

4. 경두개 자기자극치료(TMS) 클리닉

TMS는 수술이나 마취 없이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시켜 우울증, 불안증 등을 치료하는 혁신적인 치료방법이다.

5. 안구운동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EMDR) 클리닉

EMDR은 치유가 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 충격적인 경험의 기억을 직접 처리함으로써, 고통스러운 증상을 없애고 보다 적응적으로 현재에 대처하도록 돕는 치료기법이다.

6. 노인 및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클리닉

체계화된 검사를 통해 노인 및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약물치료, 인지치료, 행동치료, 상담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7. 지역사회정신재활 클리닉

이천시 정신보건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본원의 사회재활센터와 여러 지역의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하여 만성정신질환 환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재활을 돕고 있다.





안녕하세요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입니다.

20년 전, 창살 없는 한국 최초의 정신병원으로 주목을 받으며 개원했던 저희 병원이 **보호(의료급여) 병동을 증축**하였습니다. 정신적 고통 속에서 치료의 기회조차 포기해야했던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위해 증축한 **보호(의료급여)병동**.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기술만으로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부족하다고 믿었기에 가톨릭 이념과 함께 환우의 인권을 제1의 가치로 두고 개방과 소통의 병원이 되기를 지향해온 지난 20년의 결과물입니다.

저희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은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비판받던 과거 정신병원과는 출발부터 다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으로 감시카메라와 창살 없는 개방병원을 운영하여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 전인적인 자유의 가능성을 일찍이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개방 정신병원**, 그리고 **보호(의료급여)병동 증축**으로 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진정한 치료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을 지켜봐주십시오.

마음에 짐을 진 모두와 마음으로 소통할 때를 기쁨으로 알고,

병원 직원 모두가 환우들을 위한 조력자로 양질의 의뢰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병원장 양낙규(라파엘) 신부

"누구라도 부끄럼 질진 것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보호(의료급여) 병동 증축

환우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1. 개방과 소통을 지향하는 창살 없는 개방형 전문병원
2. 정신의료기관 최초로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환자의 인권이 제1의 가치
3. 수준 높은 진료, 다양한 최신 첨단 장비와 재활요법의 서울대학교병원 모자병
4. 제한을 최소화한 특화된 병동 시스템과 자연 속 최적의 치료 환경 제공
5.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을 통해 환자를 위한 최상의 치료 서비스 제공
6.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한 환자들을 위한 보호 병동 증축 운영
7. 미사와 신앙 상담 등 가톨릭 정신으로 환자들의 영적인 성장 도움

보호(의료급여) 병동

급성, 아급성의 중독이나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위한 병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는 자로서 해당 가정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생계비는 1,236,609원.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진료과목

- 중독치료 (알코올, 도박, 약물, 게임 등)
- 우울증
- 정신분열증
- 조울증
- 노인성질환
- 기타 정신질환



문의 : 031) 639-3700